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문영임* · 이성규** · 김지혜***

요약

최근 우리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서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들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장애인 2,200명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경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기보다 자립과 자력으로 디지털기기 및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할 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디지털격차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oon, Young-lm* · Lee, Seong-gyu** · Kim, Ji-hye***

Abstract

Recently, Korean society has emphasized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in each individual's life due to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ffects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and whether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200 people with disabilities taken from the 2020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when they are employed and have a higher than average monthly income and higher levels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upport played a negative moderator role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life satisfaction can increase when the disabled frequently use digital devices and technologies in their daily lives without relying on social support, and suggested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policies and practice sites.

Key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digital divide

Received Aug 2, 2021; Revised Aug 2, 2021; Accepted Oct 18, 2021

* First Author,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venha@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sglee1@uos.ac.kr)

*** Second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Foun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kcom0712@naver.com)

I. 서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한 현 시기에,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 수준과 광범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디지털 강국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 쇼핑, 은행업무 등 실생활과 연관된 많은 서비스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7). 즉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상대방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비례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힘들다.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에 배제된 정보소외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더욱 고립과 도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Ko & Park, 2020).

특히 장애인은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 등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 면에서 취약하여 지능정보사회에 편승하지 못한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비장애인 국민 대비 81.4%에 해당하는 등 여전히 디지털 인프라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도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장애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모두 취약한 수준임이 드러났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정보가 곧 재산이 되는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은 자원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Yoo & Kim, 2020), 더욱이 장애인에게 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유의미한 삶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요인이다. 그동안 사회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배제와 고립을 경험한 장애인은 PC 및 모바일기기 활용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직면했던 시공간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제·문화·교육·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타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Kim, et al., 2009; Chadwick, et al., 2013; Raja, 2016), 사회적 배제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Yeon & Choi, 2019). 이처럼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Ellis & Kent, 2011; Raja, 2016; Hwang, 2019).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디지털정보화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있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주된 수단이 되었을 때, 장애인이 스스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혜택이나 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을 둘러싼 지지체계의 '일정 수준 도움 및 지지'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m, et al., 2008; Yoo & Kim, 2020).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을 기반으로 한 자립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능동적,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에 수행되었던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Jun, et al., 2017; Baek, 2019)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는 것도 중요하나, 미흡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절요인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디지털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이론적배경

1. 디지털격차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의 필요성은 디지털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며, 정보화 확산 과정에 따라 개념적 유형이 다층적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디지털기기 관련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디지털기기 보급과 인터넷 접근성이 포화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물리적 접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및 활용’ 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진화되고 있다. 즉 기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Ju, et al., 2018), 이제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의 정보 활용 수준의 관점에서 디지털격차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olnar(2002)는 정보기술 적응 시기에 따라 정보격차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정보격차의 수준과 특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도입기(Early Adaption)는 정보의 ‘접근 여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며, 이후 도약기(take-off)에 이르러 일정 부분의 접근격차가 해소된 이후에는 ‘사용 여부’에 따라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는 동일한 기기와 기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이용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포화기(Saturation)에 이르면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와 낮은 접근 비용으

로 인해 정보 활용에 있어 ‘사용의 질’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양적인 이용 격차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걸러내는 활용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rgittai & Hinnant, 2008; Kim, 2018).

우리나라 또한 이제는 정보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5.4%로 비장애인 국민과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기기의 보급·확대, 정보서비스 이용 요금의 대중화에 힘입어 언제 어디서든 정보 기기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Hwang, 2019). 이에 디지털격차 해결방안에 대해 단순히 정보 및 기기 이용 여부 또는 집단 간 이용량의 차이를 중요시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집단 내 정보의 질적 활용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질적 차이에서 기인한 디지털격차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가 다른 격차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Song, 2014). 기존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디지털격차가 더해져 더욱 심화된 집단 내·외의 소외와 배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차이로 인해 정보격차 해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속한 집단의 경우 소외와 배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디지털정보화 활용 관련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증적 정책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은 사회통합 및 자립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면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 및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맞물려 노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타 정보소외계층 대비 심화된 배제와 소외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Song, 2014)에서 장애인

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삶의 만족도’ 개념에서 쓰이는 ‘삶’이라는 용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생활’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어 단어 ‘life’를 ‘삶’ 혹은 ‘생활’로 번역하기 때문에 풀이된다(Han, 2010). ‘삶’을 하나의 용어로 명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삶의 만족도는 또한 학자들마다 생활만족도, 삶의 질, 행복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eugarten, et al.(1961)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의 감정상태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으며, Havighurst (1968)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Burr(1979)는 경제·환경·사회적 지표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Clover(2008)은 사회적 관계, 지역환경, 사회적가치, 정치, 경제적 조건 등 광범위하면서도 다차원적인 개념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 안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Kim, et al., 2003)로, 이는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영역까지 포함하며, 생활 전반에 대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복합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Han, 2010). 즉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안녕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만족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Oh & Paik, 2003).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기기 사용의 대중화로 인해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이 개인의 일

상생활 및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첨단 디지털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정보 불평등 해소, 삶의 만족도 향상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scoffery, et al., 2005; Hogeboom, et al., 2010; Zheng, et al., 2015; Kim, et al., 2020).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 연관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고령층 대상의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포함한 정보화 수준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Son, 2000; Choi, 2002; Kim, 2003; Yang, 2004; Jeong & Lee, 2012)과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 Hwang & Hwang, 2017; Lee & Lee, 2019; Kim, et al., 2020; Helliwell, 2003; & Poussing, 2010; Kavetsos & Koutroumpies, 2011). 한편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Jeon, 2015; Hwang, 2019; Baek, 2019; Gur & Rimmerman, 2017).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을 차지하는 정채생활만족도(Lee & Lee, 2018), 대인관계(Lee, et al., 2020), 일상생활만족도(Yeon & Choi, 2019)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정보활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및 일상생활 대부분의 영역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타인, 집단 혹은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유대를 통해 도움을 제공받는 것(Lin & Dean, 1981)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서적, 물질적 도움,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이러한 지지에 대한 인지된 적절성을 의미한다(Hooyman & Kiyak, 2002).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인간관계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겪는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Cobb, 1976),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자원이다(Kim, 1995; Seo & Le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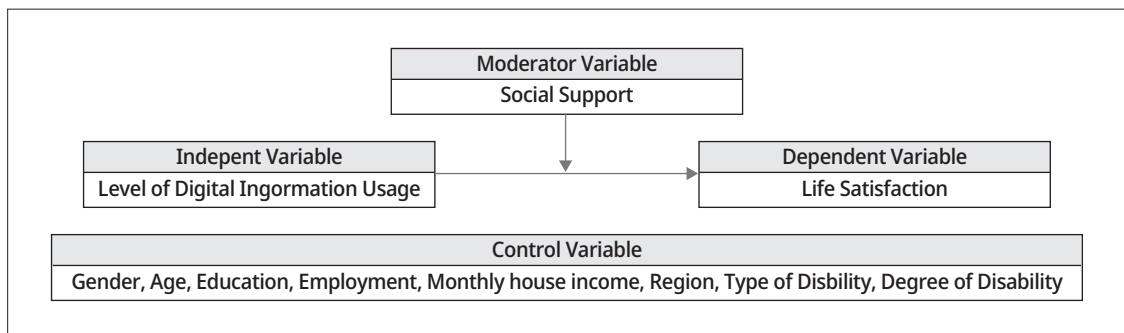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망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Ann, 2006; Lee & Kim, 2010; Jeong, et al., 2013; Lee & Jeon, 2015). 일반적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자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족관계(Kweon & Kim, 2012; Lee, 2010; Jeon & Yang, 2012; Mun & Lee, 2017), 사회적관계(Kwon, 2012; Mun & Lee, 2017) 등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를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디지털 기기 이용여부를 넘어서 정보생산, 네트워크 및 사회적 교류, SNS 및 클라우드 사용, 디지털 경제활동 참여 등 전방위의 생활에서 지금과는 다른 삶의 경험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어 (Van Deursen, et al., 2014; Courtois & Verdegem, 2016; Helsper & Van Deursen, 2017; Kim & Ko, 2020)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실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관계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요인의 실제적인 역할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정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디지털 정보격차해소 정책 도출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접근·역량·활용 영역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포함한 장애 특성,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심리적 변수, 사회적 지지, 디지털정보화 수준 등과 관련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15,000명이며, 모집단은 전체인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이다. 표본추출은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에 대해 분석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15,000명 중 장애인 응답자 2,20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분석변수 및 변수측정 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전반에 걸친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과 기대에 대한 충족 정도이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1) 여가 및 문화활동, (2) 경제적

여건, (3) 사회활동, (4) 대인관계, (5) 가족관계, (6) 내가 하는 일, (7) 신체 및 정신 건강, (8) 정치 및 정부 활동 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경우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④ 매우 만족한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알파의 값은 .912로 나타났다. 8개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는 유선 및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다양성 및 심화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활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최근 1년간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관련하여 총 7개의 카테고리, 25개 문항 ① 전혀 없다 ~ ④ 자주 있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별 세부문항은 (1)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관련 4문항(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2) 사회관계 및 정부 공유 서비스 관련 5문항(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3) 생활서비스 관련 4문항(생활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금융거래서비스, 공공서비스) (4) 정보생산·공유정도 관련 2문항(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수정·편집한 콘텐츠, 인터넷에서 본 콘텐츠를 올리거나 링크 공유) (5) 네트워킹 관련 2문항(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치밀해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 정도,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소통을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 정도) (6) 사회참여 관련 4문항(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 의견 표명, 인터넷을 통한 정책제안이나 건의·정책평가·민원제기 등, 인터넷을 통한 기부나 봉사활동 정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서명 등에 참여한 정도) (7) 경제활동 관련 4문항(인터넷을 통한 취업 또는 이직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정도, 인터넷을 통한 창업이나 사업

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용 정도, 인터넷을 통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습득 및 검색의 활용 정도, 인터넷을 통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알파의 값은 .871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은 PC 및 모바일기기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카테고리별 PC 및 모바일기기 기준을 총합하였으며, 7개 카테고리 총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은 (1)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긴밀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 (4)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나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알파의 값은 .912로 나타났다. 5개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 거주지역,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거주지역은 시는 1, 군은 0으로, 경제활동 상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재코딩하였다. 장애유형의 경우 본 패널조사에서는 장애유형을 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63.7%가 지체장애인임에 따라 지체장애 1, 그 외 장애 유형은 0, 장애정도의 경우 중증일 경우 1, 경증일 경우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로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조절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2,200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68.2%, 여성 31.8%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로 조사 되었으며, 연령의 경우 평균 53.94세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장애인이 디지털기기 활용 및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초졸 이하 16.7%, 중졸 25.3%, 고졸 49.8%, 대졸 이상 8.2%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 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00)

Variable	Frequency(%)	
Gender	Male	1,501(68.2)
	Female	699(31.8)
Age	Mean : 53.94, S.D : 11.668	-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368(16.7)
	Middle school	556(25.3)
	High school	575(2.36)
	Above undergraduate	180(8.2)
Residence	Urban	1,986(90.3)
	Rural	214(9.7)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Korean currency: Won)	Less than 500,000	34(1.5)
	500,000 - 990,000	274(12.5)
	1,000,000 - 1,490,000	336(15.3)
	1,500,000 - 1,990,000	307(14.0)
	2,000,000 - 2,490,000	279(12.7)
	2,500,000 - 2,990,000	255(11.6)
	3,000,000 - 3,490,000	300(13.6)
	3,500,000 - 3,990,000	146(6.6)
	4,000,000 - 4,490,000	120(5.5)
	5,000,000 - 5,990,000	102(4.6)
Over 6,000,000	47(2.1)	
Economically Active of Inactive	Economically active	862(39.2)
	Economically inactive	1,338(60.8)
Type of Disability	Physical disorder	1,402(63.7)
	Brain lesion disorder	266(12.1)
	Visual disorder	273(12.4)
	Hearing disorder	208(9.5)
	Language disorder	51(2.3)
Degree of Disability	Severe	760(34.5)
	Mild	1,140(65.5)
Total	2,200(100)	

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응답자의 90.3%가 시단위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 미만이 56%인데 반

해 300만 원 이상이 32.4%로 나타나 대체로 가구의 월 소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39.2%, 미취업자

가 60.8%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장애 특성의 경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12.4%, 뇌병변장애 12.1%, 청각장애 9.5%, 언어장애 2.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 34.5%, 경증 65.5%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응답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디지털기기 이용이 가능한 경증의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7.29점과 25.86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M)이 13.88(SD=4.62)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5점과 20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M)이

13.53(SD=3.08)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변수는 8점과 32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M)이 19.43(SD=4.46)로 중간이상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의 절댓값은 3.0 이하, 첨도의 절댓값은 10.0이하일 경우에 정규분포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각각의 변수에 대한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3 미만으로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5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표 2> 주요변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N=2,200)

Variable	Min.	Max.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7.29	25.86	13.88	4.62	.589	-.864
Social support	5.00	20.00	13.53	3.08	-.666	.108
Life satisfaction	8.00	32.00	19.43	4.46	-.375	-.076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 Verific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in Variables

(N=2,200)

Variable	1	2	3
1	1	.217**	.373**
2	.217**	1	.544**
3	.373**	.544**	1

*p<.05, **p<.01, ***p<.001.

〈표 4〉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N=2,200)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VIF	B	β	t	VIF	B	β	t	VIF
Control Variable	Gender	-.124	-.014	-5.86	1.171	-.043	-.005	-.237	1.172	-.029	-.003	-.162	1.173
	Age	-.010	-.029	-1.197	1.200	.015	.045	2.076*	1.259	.015	.044	2.037*	1.259
	Level of Education	.015	.003	.120	1.337	-.295	-.061	-2.738**	1.357	-.291	-.060	-2.705**	1.358
	Economically active or inactive	.666	.082	3.005**	1.498	.395	.049	2.067*	1.503	.414	.051	2.171*	1.504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491	.297	11.387***	1.376	.344	.208	9.151***	1.415	.343	.208	9.143***	1.415
	Residence	-.897	-.069	-3.026**	1.058	-.982	-.076	-3.838***	1.064	-1.022	-.079	-3.999***	1.067
	Type of disability	.247	.029	1.257	1.053	-.329	-.038	-1.884	1.123	-.330	-.038	-1.895	1.123
	Degree of disability	-.334	-.038	-1.581	1.190	-.275	-.032	-1.514	1.191	-.276	-.032	-1.520	1.191
Independent Variabl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247	.283	13.506***	1.195	.259	.296	13.945***	1.240
Moderation Variable	Social support					.535	.370	18.195***	1.128	.521	.360	17.589***	1.151
Interaction Term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Social support									-.021	-.067	-3.393**	1.059
Constant		18.533				8.419				8.540			
R^2		.132				.357				.361			
adj. R^2		.128				.353				.357			
F(sig)		33.395***				97.418***				90.139***			

*p<.05, **p<.01, ***p<.001.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13.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경제활동상태($\beta=.082$, $p<.01$)와 가구월평균소득($\beta=.297$, $p<.001$), 거주지역($\beta=-.069$, $p<.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취업자일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시 단위의 지역보다 군 단위의 지역에서 거주할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의

미한다. 모델2에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함께 투입 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5.7%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beta=.370$,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beta=.247$, $p<.001$)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beta=.045$, $p<.05$), 최종학력($\beta=-.061$, $p<.01$), 경제활동상태($\beta=.049$, $p<.05$), 가구월평균소득($\beta=.208$, $p<.001$), 거주지역 ($\beta=-.076$, $p<.001$)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다. 이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통제변수와 독립 변수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모델 3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모두를 분석에 포함하여 상호작용항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6.1%였으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항($\beta = -.067, p < .01$)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다수의 독립변수가 투입되는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tolerance) 수치를 확인하였다. VIF는 10 이하 또는 공차한계 1 이하일 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검증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가 10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 한계 역시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eong, 2014).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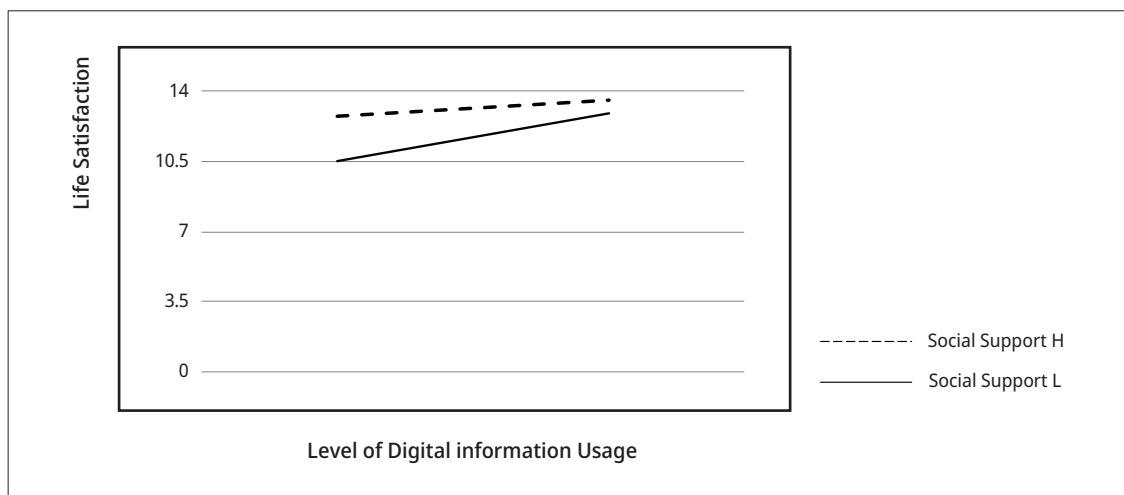
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그래프를 통해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울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파른 음의 기울기가 나타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20년 실시한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가구월평균소득, 거주지역 요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취업자일수록,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시단



<그림 2>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Fig. 2>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Support

위의 지역보다 군단위의 지역에서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Lee, 2011) 및 고용상태나 경제적 능력과 같은 경제활동 요인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Park & Hur, 201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 특성 요인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긍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회성 또는 단순 인터넷 이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영위하는 전반의 활용에서 디지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를 장애인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기 이용여부를 넘어서 정보생산, 네트워크 및 사회적 교류, SNS 및 클라우드 사용, 디지털 경제활동 참여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스스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조력자에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조력자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장애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것

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접근성 제고에 앞서 이제는 개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취약계층 집단과 비장애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 접근성의 문제는 이미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즉, 동일한 디지털정보기기를 소유·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정보 활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기기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개인의 일상생활 삶의 만족도에 있어 질적 격차가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디지털기기 보급, 디지털기기 이용 교육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PC 중심의 활용 교육에서 확대하여 스마트기기 활용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분별 및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중심의 교육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의 의지와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조력자의 존재가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여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있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보다 디지털기기 및 기술 활용이 지속가능한 사회

활동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요소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활용하도록 유도할 때 실질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디지털기기 및 기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디지털기기 및 기술에 대해 효용성 및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준·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이 디지털기기 및 기술을 활용하여 여가문화생활, 사회참여,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기기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메일 및 콘텐츠 서비스·정보공유 서비스·생활서비스 이용방법과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하여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한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문항의 한계로 인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심리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디지털기기 및 기술 이용태도 또는 이용동기, 우울, 불안감, 낮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특성을 매개로 일상생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유형은 총 5가지 유형(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으로 지적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향후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인을 포함하

여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nn, T. (2006). "A Study on Internet Use and Expectancy - value Gratification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woon University.
- {안태옥 (2006). <노인의 인터넷활용과 기대가치 충족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ek, S. (2019). "Effects of Information Level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Focused on the Differences by Disability Typ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 {백세현 (2019).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rr, W. R., Leigh, G. K., Day, R. D.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edited by Wesley R. Burr...[et al.].
- Jeon, D. & Yang, S. (2012).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handicapped old aged : Comparis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and non-handicapped old ag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7, 1-16.
- {전동일·양숙미 (2012).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장애노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7권, 1-16.}
- Clover, A. (2008).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studies of disabled children.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18(9), 423-42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 Choi, M. (2002). "Importance and the plan for activation of computer literacy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of the ag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 {최미영 (2002).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 의 중요성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urtois, C. & Verdegem, P. (2016).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n 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digital inequalities." *New Media & Society*, 18(8), 1508-1527.
- Courtois, C. & Verdegem, P. (2016).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n analysi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digital inequalities." *New Media & Society*, 18(8), 1508 - 1527.
- D. Chadwick, C. Wesson & C. Fullwood (2013). "Internet access b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equalities and opportunities." *Future Internet*, 5(3), 376-397.
- Ellis, K. & Kent, M (2011). "Disability and new media." *Routledge*, Vol. 7.
- Escoffery, C., Miner, K. R., Adame, D. D., Butler, S., McCormick, L. & Mendel, E. (2005). "Internet use for health inform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3(4), 183-18.
- Gur, A. & Rimmerman, A. (2017). "Online activity, offline soci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sraeli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Cyber Psychology Behavior Society Network*, 20(11), 695-701.
- Hargittai, E. & Hinnant, A. (2008).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602-621.
- Han, J. (2010). "Structur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Doctor's Thesis,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DaeguHaany University.
- {한정화 (2010). <노년기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avighurst, R. J.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Helliwell, J. F. (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20(2), 331-360.
- Helsper, E. J. & Van Deursen, A. J. A. M. (2017). "Do the rich get digitally richer? Quantity and quality of support for digital engage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20(5), 700-714.
- Hogeboom, D. L., McDermott, R. J., Perrin, K. M., Osman, H. & Bell-Ellison, B. A. (2010). "Internet use and social networking among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6(2), 93-111.
- Hooyman, N. R. & Kiyak, H. (2002). *Social gerontology*, 6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Hwang, H. & Hwang, Y. (2017). "Gaps and Reasons of Digital Divide within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Household Composition."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4(3), 359-386.
- {황현정·황용석 (2017). 노인집단내 정보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24권 3호, 359-386.}
- Hwang, J. (2019). "The Effect of Digital Divide on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Informatization Policy*, 26(3), 53-68.
- {황주희 (2019). 장애인의 정보 활용 격차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6권 3호, 53-68.}
- Jeon, B. (2013).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of Public Social Worker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3), 476-515.
- {전병주 (20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권 3호, 476-515.}
- Jeong, M. & Lee, Y.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et Us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1), 63-85.
- {정민숙·이유리 (2012). 정보화교육 참여노인의 인터넷활용 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권 1호, 63-85.}
- Jeong, K., Yun, J. & Kim, J. (2013). "The Effects of Internet Utiliz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 Soci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2), 357-382.
- {정규형·윤지희·김종성 (2013). 노인의 인터넷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권 2호, 357-382.}
- Ju, K., Kim, D. & Kim, J.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the search for predictive variables for the information gap in the elderly*.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Conference, 443-463.
- {주경희·김동심·김주현 (2018). “노년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과 예측변인 탐색.”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443-463.}
- Jun, D., Lee, J. & Kim, D. (2017). “The Effect of smart device usage ability and usage on life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ociety*, 105-130.
- {전대성·이주실·김동욱 (2017). 스마트기기 이용능력과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5-130.}
- Kavetsos, G. & Koutroumpis, P. (2011). “Technological Afflu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 742 - 753.
- Kim, B. & Ko, J. (2020). “A Study on the Impact of Digital Supporter on Digital Social Capital in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Usage.”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3(2), 27-57.
- {김봉섭·고정현 (2020). 고령층 디지털 사회 자본에 대한 디지털 조력자 영향 연구: 디지털 정보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권 2호, 27-57.}
- Kim, M. (2003).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Handicap.”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1, 73-97.
- {김미옥 (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호, 73-97.}
- Kim, M., Kim, Y. & Um, S. (2020). “A Study about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the Older Peopl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3(1), 51-74.
- {김명일·김영선·엄사랑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3권 1호, 51-74.}
- Kim, P., Kim, H. & Lee, M. (2014). “The Effect of the Elderly's Information Appli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7(1), 25-47.
- {김판수·김희섭·이미숙 (2014). 고령층의 정보 활용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권 1호, 25-47.}
- Kim, S. Shin, H. & Kim, Y. (2020). “Analysis on Predictive Factors of Digital Accessibility Level of Middle-old Age Group: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Informatization Policy*, 27(1), 55-71.
- {김수경·신혜리·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 접근 수준 예측요인 분석: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권 1호, 55-71.}
- Kim, T., No, R. & Lee, D. (2009).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computer education for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1), 5-27.
- {김태영·노임대·이달엽 (2009). 시청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 만족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9권 2호, 5-27.}
- Kim, H. (2003). “A Study on the Inform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 69-94.
- {김혜경 (2003). 노인 정보화교육의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혜자 및 공급자 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20호, 69-94.}
- Kim, H. (2018).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digital divide Focusing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 (3), 217-232.
- {김효정 (2018). 결혼이민자 여성소비자의 디지털디지털 격차지수 결정요인: 연령별 차이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권 3호, 217-232.}
- Kim, M. (2003).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Handicap.”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 Welfare*, 21, 73-97.
- {김미옥 (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1호, 73-97.}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7).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Paradigm of Public Informatization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Future Policy*. Jinche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기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im, Y. (199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Y., Yun, C. & Jang, C. (2003). "Analyz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scales and factors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2, 313-331.
- {김용택·윤창영·정창호 (2003).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 분석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호, 313-331.}
- Ko, J. & Park, S. (2020).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Digital Usage among the Elderl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Motivation." *Public Policy Review*, 34(2), 121-149.
- {고정현·박선주 (2020). 사회적 지지가 고령층의 디지털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이용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권 2호, 121-149.}
- Kweon, J. & Kim, S. (2012).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Older Disabled Women's Life Satisfactio."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 23-45.
- {권재숙·김성진 (2012). 여성 고령장애인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16권, 23-45.}
- Lee, B. & Kim, Y. (2010). "An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et Use by the Elderly: Focusing on Network and Reliability."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4(3), 79-105.
- {이복자·김용우 (2010). 노인의 인터넷활용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네트워크와 신뢰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권 3호, 79-105.}
- Lee, H. & Lee, S.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Policy Activity Satisfaction Level of Disabled Pers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3-28.
- {이향수·이성훈 (2018). 장애인들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정책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6권 4호, 23-28.}
- Lee, H. & Lee, S.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Elderly People: Focusing on community, meeting, and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7(2), 1-7.
- {이향수·이성훈 (2019).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사회활동 만족도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모임, 공동체에의 참여활동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권 2호, 1-7.}
- Lee, H., Lee, S. & Jung, H. (2020). "A Study on the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nd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Level of Disabled Pers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3), 43-48.
- {이향수·이성훈·정용훈 (2020).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권 3호, 43-48.}
- Lee, J. (2010).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y -Focused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7, 187-212.
- {이중섭 (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호, 187-212.}
- Lee, J. & Jun, D. (2015). "The Impact of Internet Use on Life Satisfaction in the Age of Smart Devic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4(4), 431-456.
- {이주실·전대성 (2015). 스마트기기 시대 인터넷 활용이 정보

- 소외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431-456.
- Lee, Y. (2011). "The Study on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 {이영미 (2011). 장애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 요인 연구 :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31-246.}
- Lin, N., Dean, A. & Ensel, W. M. (1981). "Social support scales: a methodological note." *Schizophrenia Bulletin*, 7(1), 73.
- Mun, P. & Lee, J. (2017).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of Disabled elderly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 Esteem."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7(3), 133-160.
- {문필동·이정화 (2017).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7권 3호, 133-160.}
- Molnar(2002). "Explan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Issue." *Information Society*, Vol. 4.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Oh, H. & Paik, E. (2003).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Persons: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in the Seoul are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3(2), 157-181.
- {오혜경·백은령 (2003).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서울지역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13권 2호, 157-181.}
- Park, S. & Hur, J. (2017). "The Effects of Functional Capacity and Depression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7(1), 125-149.
- {박선애·허준수 (2017). 노인의 기능성 능력과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영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7권 1호, 125-149.}
- Pénard, T. & Poussing, N. (2010). "Internet Use and Social Capital: The Strength of Virtual Ties." *Journal of Economic Issues*, 44(3), 569-595.
- Raja, D (2016). "Bridging the disability divide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Wold Development Report*.
- Seo, I. & Lee, Y.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on Elderly Self-esteem: A Comparative Study on People who live Alone and Those who Live with Family."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8(2), 371-399.
- {서인균·이연실 (2014).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이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권 2호, 371-399.}
- Seong, T. (2014).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AMOS*. Seoul: Hakjisa.
- {성태제 (2014).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Sum, S., Mathews, M., Pourghasem, M. & Hughes, I. (2008). "Internet technology and social capital: How the Internet affects seniors'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1), 202-220.
- Son, Y. (2000). "The Roles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Aged Welfar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8, 7-29.
- {손연기 (2000).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노인복지연구>, 8, 7-29.}
- Song, H. (2014). "Consideration to Influence Factor of Using Internet Information and the Second Digital Divide: Focus on Users' Digital Literacy, Perceived Awareness, and Self-efficacy."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8(2), 85-116.
- {송효진 (2014). 질적 정보격차와 인터넷 정보이용의 영향 요인 고찰: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권 2호, 85-116.}

- Van Deursen, A., Courtois, C. & van Dijk, J. (2014). "Internet skills, sources of support and benefiting from internet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0(4): 278 - 290.
- Yang, Y. (2004).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rough the satisfaction level obtained from the use of the Interne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양영순 (2004). <인터넷 활용 만족도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eon, E. & Choi, H. (2019).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Capability, Digital Informatization Accessi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f Disabled People: Multigroup Analysi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Network." *Journal of the Korea Acad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 636-644.
- {연은모·최효식 (2019).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역량,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 일상생활만족도 간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망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권 12호, 636-644.}
- Yoo, N. & Kim, S. (2020). "The Effects of Information Competenc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111-122.
- {윤나리·김승완 (2020).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10권 9호, 111-122.}
- Yoon, H., Shin, H. & Kim, Y.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Informatization Policy*, 27(4), 85-100.
- {윤희정·신혜리·김영선 (2020). 중고령자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정보화정책>, 27권 4호, 85-100.}
- Zheng, R., Spears, J., Luptak, M. & Wilby, F. (2015). "Understanding older adults' perceptions of Internet us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ducational Gerontology*, 41(7), 504-518.